



엄마의 기대가 자신감을 키운다

박홍묵/PSA 자녀성공 어머니스쿨 부원장

김 성숙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재영이 때 문에 여간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짜증내고, 징징거리기 시작하여 조그만 일에도 자주 불평하는 통에 엄마 자신도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로 생활의 활력도 리듬도 없어 즐겁게 느껴지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달래기도 해보고, 타이르기도 하고, 주의도 주곤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포기 상태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재영이 문제로 남편과도 심하게 다투기도 했는데 그때 집안 닳, 씨앗 닳, 천성 닳으로 서로간의 불화만 더 늘고 말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무엇인가 바꿔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대학 동창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어머니스쿨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김성숙씨는 교육을 받은 첫 날부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들 재영이를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고, 긍정적인 기대의 표시를 자주 하고,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재영이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재영이의 느낌이나 감정을 알아주고 반응하는 대화를 연습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긍정적 기대의 표시를 매일 실행하고, 또 기대의 편지도 써서 책상 위에 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날 재영이가 잠든 후 글쓰기 공책을 펴본 김성숙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단점만 가지고 야단치기만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글씨도 예쁘고 글도 잘 썼는데도 지금까지 칭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아들에게 다가서서 어깨를 감싸안고는

“재영아, 너는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쓰니. 이다음에 커서 훌륭한 작가가 될꺼야”

“엄마, 내가 글을 그렇게 잘 써?”

“그럼, 잘 쓰고 말고, 게다가 글씨도 예뻐서 엄마가 놀랬어”

“다음부터 더 잘 쓸꺼야”



재영이는 신이 나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재영이를 학교에 보내 놓고 아들을 칭찬할 일이 또 무엇이 있나 손으로 꼽아 봅니다.

심부름도 잘 하고, 동생도 잘 데리고 놀고, 옹고그른 일을 구분할 줄도 알고, 그림도 잘 그리고 등등 열 가지가 넘었습니다.

김성숙씨는 재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긍정적 기대와 함께 칭찬할 일을 생각하니 상쾌한 봄 내음이 코 끝에서 느껴집니다.